

걸어가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거대한 몸집의 공기가 지나갈 때면 거리의 모든 것이 훑날린다. 떨어진다. 굴러간다. 그런 날씨엔 분실물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정신이나 마음 같은 것 역시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사람을 칠칠치 못하게 만드니까. 큰 바람과 동시에 열기를 내리꽂는 햇빛. 어릴 적 동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이상한 날씨를 가진 하루. 나는 그날 여자를 보았다. 내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제인 버킨이 입었을 것만 같은 디올 빈티지 셋업. 니트로 짜인 톤 다운된 자주색 미니 원피스. 그 위에 시스루 카디건을 걸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코디였다. 잡지에서 본 것 같이 완벽하지만, 어깨의 푸른 이염 때문에 현실감이 생기는 옷. 내가 버렸던 옷.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와 마음이었으니까. 내 옷을 입은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지나갔다. 요즘 귀신은 스마트폰도 있나. 여자는 손바닥 안 화면을 꽤 열심히 본다. 게다가 타자도 친다. 아무래도 헛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제야 안도한다. 안도하는 순간 참을 수 없이 무서워진다.

내 옷을 입은 여자는 지하철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와도 인사하지 않는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간다. 그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나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 옷을 입은 하루가 어떤지. 유독 많이 웃는 날인지, 예상치도 못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인지. 어쨌면,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낮잠 속 꿈 같다고. 여기서 깨어나면 깜깜한 밤일 것만 같다. 선잠에 흘린 식은땀. 갑자기 나 혼자 노인이 된 기분을 들게 하는 꿈. 나는 여자를 따라간다. 바람은 숨죽일 생각이 없다.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걸까. 프라하. 시드니. 고르드……. 아니면 내가 모르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외딴 땅.

어디에 있을까. 나는 여행자가 된 지히 언니를 그려본다. 후미진 펍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는, 흐리고 고요한 강가에 앉아 바게트를 뜯어 먹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는 지히 언니의 실루엣. 언니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희망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다.

박음질을 잘 보셔야 해요. 내가 지히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당부한 말이었다. 놓치

기 쉬운데, 가느다란 실까지 이염이 물들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 적어도 반값은 받아내야 해요. 박음질은 반값. 박음질은 반값. 박음질은…… 언니는 그렇게 중얼거렸으면서도 이염을 묻혀 온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았다. 나는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 렌탈샵에서 삼년 째 근무 중이었다. 명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곳. 오만 원만 지불하면 셀린느 미니 크로스백을 사흘 동안 메고 다닐 수 있었다. 어찌면 옷이라는 건 가장 빠르고 쉽게 원하는 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택배를 부치며 생각한 적 있다. 매장 문을 닫기 전이면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근사한 옷을 몸에 가져다 대보곤 했다. 그냥 그렇게 대보기만 했다. 지히 언니는 그곳의 두 번째로 들어온 직원이었다. 실수가 잦아 금방 그만둘 줄 알았다. 용산구에 보내야 할 루이뷔통은 동작구로 보냈고, 동작구로 갈 에르메스는 바다 건너 제주로 갔다. 지히 언니는 반납되어 돌아온 옷가지를 품에 안고 냄새를 맡았다. 이 사람 파티에 다녀왔나 보네. 이 사람은 어디 바다 보고 왔나 봐. 개랑 놀고 왔나 봐. 이런 말들을 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으면 냄새로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잘 맡으면 나요.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디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막 감정도 같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이 코튼이나 바닐라처럼 편안한 냄새를 찾고 우울한 사람은 우드나 머스크처럼 무거운 냄새를 찾는 것처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쁨 냄새. 슬픔 냄새. 따뜻한 냄새. 빨래통 속 허물 같은 내 옷에 코를 파묻어보기도 했다.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어서 지히 언니에게 물어보았다. 나에겐 무슨 냄새가 나는지.

바람 냄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바람에 절은 냄새.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는데 어쩐지 정곡이 찔린 것 같았다. 실제로 나는 이유 없이 산책을 자주 했다. 휴일이나 퇴근 후 저녁이면 발이 닿는대로 걸곤 했다. 하루종일 걸었는데도 도착지가 없었다. 뒤통치 부근에서 빠근한 통증이 느껴지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앉았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앉을 수 있겠다 싶은 자리를 찾으면 빛이 나는 것처럼 눈에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 문 닫은 상가의 계단.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의자. 그곳이 어디든 팔짱 낀 연인이 있었고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있었고 웃는 학생들이 있었다. 많은 장소는 생각보다 서로 닮아 있었다. 내게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가는 이들을 보며 나는 그곳의 가만한 풍경이 된 것 같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땐 버스나 지하철을 탔다. 몸은 녹초가 되었다. 그럼 밤에 잘 잘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언니를 믿게 된 것 같다. 나도 몰랐던 냄새를 알게 되는 건 이 해받는 기분 같았으니까. 실수가 잦지만 상냥한 언니. 매장에 전등이 나가면 손쉽게 고

쳐주는 언니. 중학생 때 길거리에서 귀를 뚫어 구멍 대신 흉터를 갖게 된 언니. 지희라고 이름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지겨운, 지희 언니.

지희 언니는 제품에 이염 찾아내는 일을 유독 어려워했다. 어떡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말하며 손등으로 입가를 가리고 웃었다. 야윈 손등 위로 열린 푸른 핏줄이 가지처럼 솟았다. 지희 언니가 오면서부터 나는 주로 재고 관리를 도맡게 되었다. 수량을 확인하고, 태그를 달고, 클리닝 센터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세탁되어 돌아온 제품은 잘 보관해야 했다. 모든 소재는 각기 다른 이유로 너무도 쉽게 손상되었다. 가죽은 물기에 취약하다. 마른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통기성이 좋은 커버를 씌어야 한다. 니트를 옷걸이에 오래 걸어두면 늘어나기 쉽고 햇빛은 린넨의 색을 변하게 만든다. 제품의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게 맡은 일의 관건이었다. 삼 년 동안 나는 이런 걸 많이 알아야 했다. 알게 되니 좋았다. 창고에서 정리를 끝마치고 나면 편안해졌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순간. 잘자,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마음. 고급스러운 재질과 디자인보다, 비싼 가격보다, 나에겐 이런 순간이 가장 좋았다. 약속된 날 돌아온 옷에게 쉬와 잠을 주는 것. 언제 가방 하나가 반납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다. 프라다에서 나온 검은 솔더백이었고 빌려 간 손님이 기억에 남았다. 정확히는 손님의 평범함만이 또렷했다. 튀지 않는 옷차림과 어디서 본 것 같은 인상. 누군가의 결혼식에 간다고 했던 것도 같았다. 그 가방은 가격대가 높지 않았고 무난한 디자인이라 길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산책하며 걸은 길가에서도,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만 보면 의심이 들었다. 의심하는 시선 속에서도 내 손을 거쳐 간 가방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일하는 동안 처음 느껴본 허무감이었다. 그 손님은 일주일 지나서 다시 가게로 찾아왔다. 연체료를 내며 죄송하다고 했다. 카운터에 놓인 가방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길에서 정말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너무 좋은 날을 보냈나 봐요. 가방 든 날에. 지희 언니는 이렇게 말하며 손님의 이름을 블랙 리스트에 넣었다. 언니가 움직일 때마다 가지런한 앞머리가 살랑거렸다.

고객 관리는 지희 언니의 담당이었다. 반납일 안내나 연체 고지 문자를 보내고 사이트에 달린 리뷰를 관리했다. 샵으로 직접 제품을 보러 오는 손님을 응대하기도 했다. 대여의 목적에 대해 물어본 뒤 그에 걸맞은 옷이나 가방을 추천해 줬다.

우리가 함께 한 일은 매장을 쓸고 닦는 일이었는데, 빛이 참 잘 드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찬기가 돌았다.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는 반짝이는 먼지. 아침 청소를 마치면 금방 점심시간이 왔다. 정오의 논현은 생각보다 붐비는 곳이어서 언니와 나는 포장이나 배달을 애용했는데, 김이 피어오르는 우동을 많이 먹었다. 내일은 꼭 다른 음식

을 먹어야지, 이를테면 샐러드나 커리 같은 거. 전날 밤 이런 다짐을 해도 이상하게 자꾸만 우동을 먹게 되었다. 매장이 조금 추워서일지도 몰랐다. 어머 나도 그래요. 지히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새빨간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우동을 후루룩 비워냈다. 여태 우리가 먹은 우동의 면발을 이으면 태평양까지 닿을지도 몰라요. 언니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지히 언니는 우동을 먹으면서도 공부하곤 했다. 집 계약이 끝나면, 본가 근처 친구의 가게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익힐 게 많다며 구찌의 과잉된 화려함에 대해, 셀린느의 미니멀함에 대해, 입생로랑의 섹시함에 대해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보기보다 무게감이 있는 가방과 사진에서 돋보이는 가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했다. 손님들은 지히 언니가 건네는 칭찬 섞인 추천에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했다. 멋진 일이에요.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어떤 하루만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환하게 빛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눈빛을 보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게 멋진 일이 될 수 있구나. 기다림. 나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숨 막히게 하는지, 그 배신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하나의 장면만을 기다리며 매일 다각도로 꿈꾸게 한다. 그렇게 기다림이 쌓이다 보면 어김없이 실망하고 만다. 이 반복의 결말은 외면, 내가 기다렸던 장면이 찾아와도 언제 원했냐는 듯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를 자라나게 한 방식이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서로 무척 사랑했다. 서로만을 사랑했던 것 같다. 그들의 얼굴을 반반씩 빼닮은 나의 얼굴. 어머니는 내 얼굴에서 영애의 것만, 아버지는 신철의 것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 본인이 사랑한 건 본인이 아니었으니까. 서로만을 사랑했으니까.

어머니의 자애심은 나를 낳고부터 급격히 깎여갔다. 젖을 물리면서, 엉덩이에 분칠하면서, 책을 읽어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후드득, 눈물을 흘렸다. 맨발로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흰 원에 갇힌 개미처럼. 아버지의 마중을 나간 날,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내려다본 시선엔 어머니의 고운 맨발이 있었다. 반창고가 잔뜩 붙여진 발바닥. 그날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고요히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얗고도 새하얀.

물론 보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 이건 전해 들은 이야기다.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부모님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내가 혼자 신발을 신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다시 떠났다. 마치 떠나기 위해 오는 것처럼. 나는 이모네 집에 맡겨졌다. 아이가 없던 이모네 부부는 나를 많이 귀여워했고 살뜰히 챙겨주었다.

하지만 어렸던 나는 그들이 나를 원하기에 부모님이 자꾸만 떠나는 줄 알았다. 이모가 불을 맞대고 등에 업어주는 일 모두 나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돌아온 부모님은 기념품으로 과자를 주었다. 환한 얼굴로 여행에서 있었던 그들만 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부모님이 떠나는 일을 그만둔 건 그 후로 몇 년 뒤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를 와락 안았다. 무수히 그려 온 장면. 기다렸던 순간. 내 얼굴을 더듬어 만지고 다시 품에 안은 후 건네는 사랑해, 라는 말. 부모님은 한동안 자주 그랬다. 집 안 어딘가에 있는 나를 찾아내었다. 꼭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집 안 구석구석에 놓인 이국적인 물건들은 모두 버려졌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의 마지막 여행지에서. 평범하고 단조로운 생활이 이어졌다.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 같았다. 교복을 입은 내게 자신들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들은 이야기 전하듯 말했다. 우리는 널 버렸던 게 아니라, 잠시 잃어버린 거였어.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눈을 깜빡이며 아침을 먹었다.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꺼냈을 때 부모님은 순순히 전세금을 내주었다. 나는 그 금액이 지나간 시기의 보상처럼 느껴져서, 조금 슬펐다.

어떤 것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모욕이나 붉은 쾡거루의 공격. 혹은 흔들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일.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를 닮은 두 사람은 이런 걸 기다리진 않았을 테다.

나는 바라고 있다. 지히 언니의 여행에서는 모두 비껴가는 일이 되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다.

*

폭포가 뒤집힌 듯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장대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지히 언니와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변 매장의 사람들이 일제히 유리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그날은 예약 손님조차 찾아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못 갈 것 같네요. 사과가 뒤따라 오는 날씨, 완벽하게 공친 날이었다. 하지만 지히 언니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장을 정돈했다.

언니, 좀 앉아요.

내 말에 지히 언니는 그제야 발을 붙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었다. 언니가 저번에 잘못 보낸 루이뷔통이요, 뉴욕에 갔나 봐요. 여행 때 들려고 빌린 건데 오히려 사진이 더 잘 나왔다고 리뷰가 달렸더라고요. 지히 언니는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미국……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지히 언니와 나는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 없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다른 게 있다면, 난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었지만, 언니는 가고 싶은 곳이 많다는 점이였다. 정확히 가야만 하는 곳, 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나는 우리가 여전히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택배 기사가 찾아올 때까지. 기사는 접수됐던 상자들을 품에 안고 갔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젖은 땅이었다. 그러다 비가 거짓말처럼 멎었을 때 지히 언니는 내게 물었다.

오늘 끝나고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패션쇼 가지 않을래요? 디너 티켓을 두 장 얻었는데, 비가 와서 본가 친구한테 올라고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엔 친구가 없어서……

지히 언니는 스스로 뜬금없다고 느꼈는지 말을 계속 덧붙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언니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기대하는 눈빛이 되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언니는 미리 챙겨 온 옷으로 갈아입었다. 디올의 자주색 원피스 셋업. 지히 언니를 감싸고 있는 그 옷은 여태 내가 보냈던 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웠다. 내가 여태 몰랐던 아름다움 같았다. 십 년 전에 빈티지 샵에서 산 거라 가짜일지도 몰라요. 지히 언니는 그렇게 말한 후 매장을 둘러보더니 내게 실크 재질의 블라우스를 건넸다. 빌려가자고 했다. 나는 군말 없이 언니가 건넨 옷으로 받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우리는 옷매무새를 정돈하며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언니는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뻘히 들여다보았다.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표정을 지었다. 매장의 옷을 입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간 옷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까. 피부에 실크가 닿을 때마다 차가워서 놀라게 되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다. 택시는 아주 빠르게 달렸고 지히 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환한 곳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슬퍼 보이는 옆태. 자꾸 힐끔힐끔 결눈질하게 되었다.

도착한 플라자 앞은 일상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은 지히 언니와 내가 되었다. 언니가 쥐고 있는 티켓을 보았다. 작년 날짜였다. 일 년 전 오늘. 쇼 이미 왔다 간 지 오래였다. 언니는 어찌다 지난 티켓을 얻게 되었을까.

어머, 그러네. 작년이네. 미안해요. 정신머리가 없나 봐요 내가.

어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있었다. 티켓을 쥔 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게 보였다. 지히 언니와 나는 마냥 걷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날이 어두워졌다.

언니가 저한테 바람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네.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걸곤 하거든요. 꽤 자주.

그러면 내일은 둘 다 바람 냄새가 나겠네요.

지히 언니는 손등으로 입가를 가렸다. 웃음이 흘러갔다. 걸어갈 수록 길은 더 많아졌다. 많은 것을 지나쳐갔다. 평화 시장. 커다란 짐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 떡볶이 타운의 거대한 간판. 떡볶이나 먹을까요, 하고 들어간 곳은 이미 장사를 마감한 뒤였다. 하는 수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즉석 우동집에 갔다. 하루에 두 번이나 우동을 먹게 되었지만, 언제 먹어도 무난한 맛이였다. 식사를 마친 언니는 입가를 훔치며 말했다.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지히 언니의 집은 이곳에서 버스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언니의 반짝이는 옷을 따라 걸었다.

화장을 지우고, 옷을 벗었다. 옷가지의 냄새를 맡자, 재채기가 나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집을 둘러보았다. 생각해 보니 남의 집에 와본 게 참 오랜만이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누구의 집이든 간에 뛰쳐나가 걷고 싶어졌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상하게 지히 언니의 집은 편안했다. 예전에 와본 곳 같이 그랬다. 베이지 톤의 가구들과 넓은 베란다 창. 그 뒤로 보이는 붉은색 십자가. 언니는 침대가 좁아 미안하다고 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다. 금방이라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히 언니는 내게 말했다.

왜 정처 없는 산책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랄까, 점점 내가 흐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교과서에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멋진 외투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사실 유명이라 사람들 눈에는 외투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은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지히 언니와 나도 그렇게 보였을까. 오로지 우리의 옷만, 반짝였을까. 언니는 자신의 배를 더듬어 보았다. 마치 그곳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어떤 진심은 몸을 눕힌 뒤 이불을 덮어야지만 튀어나오곤 한다. 나는 어둠에 깔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나에게도 고백을 통제할 수 없던 순간이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랬다. 넌 꼭 네가 겪은 불행이 전부인 줄 안다고. 세상이 얼마만큼 나빠질 수 있는지 너는 모르지. 원하지 않을 때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래도 착하다는 말을 돌려 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튀어나온 언니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웠다. 차가운 밥알 한 톨이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 사실 아이를 버려본 적 있어요.

종일 우리가 이 순간을 기다려 온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모른 채로. 일 년이 지난 패션쇼에 가고, 거리를 떠돌며.

지히 언니는 아기가 자라나던 열 달 동안, 매일 변화하는 몸이 신비로웠다고 했다. 독한 감기에 걸린 기분. 고통스러운데 웬지 모르게 좋은 거.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귀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모든 건 지히 언니의 선택이었다. 그 남자를 사랑한 것도. 낳겠다고 결심한 것도. 낳아보니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었던 판단 모두 지히 언니의 것이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지히 언니는 새벽에 택시를 불렀다. 아기가 아파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우는 척만 하려 했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세 시간 반 내내 울면서 갔다고. 기사는 지히 언니를 달래주었다. 아가씨, 걱정 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지히 언니는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삼십만 천이십 원을 내고 신림 양지 병원에 도착했다. 베이비 박스가 있는 주사랑공동체까지 걸어가는 동안 해는 천천히 떠올랐다. 온 세상이 푸른 빛으로 물드는 짧은 순간, 언니는 아기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모른 척 하고 살면 정말 묻어지는 사실이 있다는 게. 다 묻고 살았어요. 없던 일인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어느 순간 난데없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면접 보러 백화점에 간 적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려는데 누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부드러운 손이. 보니까 웬 대여섯 살 된 아이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곤 막 울어요. 엄마인 줄 알고 착각했나. 개를 백화점 보호 센터까지 데려다주는데 한참 헤매는 바람에 면접 시간까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초조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보호 센터에 놔두고 가려 해도 애가 제 손을 놓지를 않아서. 애 엄마가 한참 뒤에 와서 면접은 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날 입었던 코트를 다시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잡히는 거예요. 오렌지 맛 사탕이었어요. 애가 입안에 있던 걸 넣어놨는지 주머니에 다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달콤한 냄새가 나고 찢득거렸어요. 나는 손바닥 안에 있는 그걸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잊고 있었던 기억만 빼고 모든 게 안개가 끼듯 잊히는 것 같아서.

언니가 아기를 낳은 시기는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여아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입양됐다. 사정하는 지히 언니에게 당신의 아이도 떠났을 거라고, 어느 사회복지사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고 했다.

이후로 꿈을 종종 꿔요. 집 앞에 택배 상자를 열면 내 아기가 있어요. 나에게 마미, 그래요. 살갓에서 싱그러운 오렌지 과육 향이 나요. 말고도 믿을 수 없는 진짜 오

렌지 냄새. 가져본 적도 없는 삶이 그리워지다니, 웃기죠. 그냥, 걸어보고 싶을 뿐이에요. 나를 닮은 작은 아이가 갔던 길일까,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나를 살아내게 해요.

나도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말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다, 무언가를 그토록 원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났다는 거짓말이라도 하려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 빛 든 천장이 보였다. 아침이었고 옆엔 아무도 없었다. 꿈을 꿔구나, 했는데 나는 여전히 지히 언니의 침대 안이었다. 핸드폰을 보니 언니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본가에 가야 하는 걸 잊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한참을 침대 속에 있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요. 편한 옷만 좀 빌려 갈게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난 뒤에도 나는 조금 더 침대에 머물렀다.

열어본 언니의 옷장엔 유행 타지 않고, 흔하지도 않은 옷들이 많이 있었다. 줄무늬 머플러, 둥근 깃의 카디건, 색 바랜 청바지. 새것 같지 않아서 더 근사해 보이는 것들. 마치 긴 세월을 모아둔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 입었던 옷일까. 손바닥으로 소매를 쓸어보다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중 가장 편해 보이는 검은 티셔츠 하나를 꺼내 입었다. 맨발로 집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다. 바닥에 들어온 빛을 잘근잘근 밟을 때마다 발이 따듯해졌다. 소파에 살포시 앉았다. 남의 집에서 맞이한 산뜻한 하루의 시작.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고 들떠서 발가락을 꼬지락거렸다.

그날 이후 나는 지히 언니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항상 움직이고 있는 몸과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 뭐가 들어간 것처럼 유독 떨리는 왼쪽 눈가. 잘 웃는 게 아니라 잘 웃고 싶어 한다는 것. 언니는 뭐든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내게,

그래야 사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언니는 정말 삶을 살아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종종, 일을 마치면 지히 언니네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가는 길 내내 내가 두근거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우편물이 잔뜩 쌓여있는 입구를 지나, 고요하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집. 지히 언니의 일 년간 손때가 묻은 공간. 그곳에 있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집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의 이불을 함께 덮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춥지 않았다. 쏟아지듯 잠이 밀려 왔다. 꿈결에도 잠은 참 좋은 거구나, 느끼며 아주 깊게 잤다.

어느 날엔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춰 한 손님이 찾아왔다. 반납한 옷 주머니에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 여자가 찾는 이자벨마랑의 오버사이즈 재킷은 이미 클리닝 센터에 보낸 뒤였다. 나는 여자에게 찾는 물품에 관해 물었다.

그게 하얗고 작고…… 흐린데……

여자가 잃어버린 건 무엇이었을까. 희고 작는데 사라질 것 같은 거. 담배. 휴지, 혹은 체온계……. 클리닝 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실물에 관해 물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분명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매장의 유리문을 열고 빛 속으로 걸어갔다. 지히 언니와 나는 매장을 쓸고 닦으며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혹여나 여자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할까 봐. 그러자 모든 게 하얗고 작고 흐리게 보였다.

우리는 청소를 마친 뒤 우동을 먹었다. 면발도 유난히 희게 보였다. 지히 언니는 내게 말했다. 오늘 집 보러 온대요.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처음이에요. 나는 화들짝 놀랐다. 언니가 떠나려는 구나. 지히 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의 가게를 받아야 했고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히 언니의 집을 들추고, 관찰하고, 사진에 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께 깊은 곳이 달궈지는 듯했다. 나는 언니에게 물었다.

그 집 내가 살면 안 돼요?

언니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그래 줄래요? 몇 번이나 물어보았다.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잦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머물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머리를 모으고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손 없는 날에 원을 크게 그렸다. 원이 늘어날 때마다 내 몸 어딘가에도 구멍이 생기는 것만 같았다.

이삿짐 싸는 걸 도우며,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언니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있었다는걸. 간소한 짐이 말해주었다. 몇 번 오가지 않았는데도 푸른 트럭에 다 실을 수 있었다. 지히 언니는 나를 안아주었다. 언니의 몸은 너무나 따뜻했다.

나에게 온 행운이 다시 유영 씨에게 돌아가길 바라요.

그런 말을 건네며, 지히 언니는 떠났다. 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악한 귀신이 없는 길한 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갔다. 다신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라고 느꼈기에 지히 언니, 라고 불러 볼 수 없었다. 뒤돌아볼 언니의 얼굴을 모르고

싶었다. 환하면 슬퍼질 것 같았다.

언니는 왜, 내게 어떤 표식처럼 옷을 놓고 갔는지. 우리가 열리지 않는 패션쇼에 간 날 입은 옷. 어깨에 푸른 이염이 꼭 멍 같아. 잃어버린 것도 버린 거라면, 버린 것도 잃어버린 게 될 수 있을까.

원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서 언니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 친절하 부동산 주인과 빨간 도장을 찍어 받은 집. 이젠 돌아갈 곳이 없는 내 집. 바닥에 누워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찬장 여닫기를 반복했다. 아직 가구가 도착하지 않아 험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외풍이 들어왔다. 날이 벌써 추워지려나. 나는 옷을 더 걸친 후 침대로 향했다. 불을 끈 후 눈을 감았다. 눈꺼풀을 덮자 어둠이 보였다. 어둠 앞에선 흘러가는 시간이 감각되지 않았다. 자야 해. 자야만 해. 머릿속으로 주문과 같은 말을 되뇌다가 나는 결국 다시 거리로 나오고 말았다. 걷고 또 걸다가 문 닫은 약국 계단에 잠시 앉았다. 지히 언니가 오면, 내가 얼마나 집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익숙한 마음에 놀라버렸다. 뜨거운 유리를 만진 것 같이 그랬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구나 나. 늦은 시각인 걸 알면서도 지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다음 날에도 나는 한밤중 거리로 나왔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다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명랑한 목소리. 내가 말하지 않자 정적이 이어졌다. 맑은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윽고 문자 한 통이 왔다. *안녕. 폰 바뀌서 번호 없어ㅜㅜ 너 세은이ㅇㅈ?* 문 닫은 약국 계단에 앉아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하지 않고 돌아갔다.

직원을 다시 구하는 동안 나는 혼자 일해야 했다. 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만큼 매장은 조금 더 추워졌다. 뺏속을 후벼 파는 찬기에 속절없이 다시 우동을 먹게 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하루만을 위해 옷과 신발을 빌렸고 나는 조용히 남겨진 옷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나는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지히 언니가 미운가? 아니면 언니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흰 대리석 바닥으로 깔날 모양 같은 빛이 들어왔다가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지히 언니가 밋지 않다. 정말로 언니가 밋지 않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난 정말 몰랐다니까. 친절한 부동산 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몇 가지 서류를 처리하며 등기를 떼다가 집 앞에 붙은 ‘가압류’라는 단어가 보였다. 내 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폭탄 같은 집이었다. 내가 아픈 만큼 남을 아프게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구조. 당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부모님이 내어준 보증금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내놓았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부동산에서 온 것일까 봐.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퇴근길이면 다시 한참을 걷다가 들어가곤 했다. 마지못해 문고리를 열었을 때, 발에 닿는 바닥은 언 것처럼 차가웠다.

지히 언니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구나, 알게 되자 나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언니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지히 언니가 놓고 간 자주색 원피스를 몸에 걸쳤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의 이염을 매만져 보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웃어보았다. 다,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옷을 벗어 집 근처 헌옷수거함에 던져 넣었다.

나는 이제 산책하지 않는다. 목적 없이 그렇게 바람을 문히며 돌아다니지 않는다. 무척 피곤했던 밤에, 걷고 걷다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택시를 불렀다. 잠깐 눈을 붙였다 뜨니 전에 살던 집에 도착했었다. 어플 속 도착 주소지를 고치지 않은 탓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옆집 창문이 새카맣게 그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올려다보았다. 그곳에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네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하나의 뉴스가 나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아나운서의 또렷한 발음과 함께 화재나 대피 같은 말들이 들렸다. 이윽고 나오는 제보된 동영상에는 내가 살던 집이 담겨 있었다. 불길이 치솟는다. 불은 말이 없다. 강렬한 색채를 내뿜으며 집요하게 태울 뿐이다. 나의 베란다였던 그곳으로 한 사람이 뛰어내린다. 살기 위해서. 어머 어떡해. 제보자의 탄식과 함께 영상은 끝이 났다. 끝남과 동시에 나는 다시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갔다. 멈출 수 없었다. 출근하며. 우동을 먹으며. 산책 대신 그 영상을 시도 때도 없이 보았다. 그럼 모든 게 잊혔다. 잊혀지지 않는 날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지히 언니가 오렌지빛 사탕을 보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 속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몸짓을 보며, 알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내 옷을 입은 여자, 하품을 길게 늘어뜨린다. 바람 때문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입 안으로 들어간다. 길을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선다. 원목 위주의 가구점. 진열대에 놓인 의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다시 걸어간다. 나 역시 조심스레 따라간다. 이후 여자는 백화점에 들어선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간다. 그곳엔 많은 음식이 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형도 있다. 여자는 푸드코트를 빙글빙글 돌더니 초밥을 파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하얗고 작은 밥 위에 생선의 붉은 살이 올려진다. 여자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그것을 먹는다. 무언가 떠올랐는지 씹는 걸 잠시 멈춘다. 핸드폰을 확인한 후 다시 입을 열심히 움직인다. 식사를 마친 여자, 물 한 컵 비워낸 후 그곳을 빠져나간다.

여자에게 말을 붙이고 싶다. 그 옷을 알아요. 나도 그 옷을 입어본 적 있어요. 여자는 가로수가 무성한 길을 걸어간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나는 여자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순간 풀썩 내려앉는 여자. 여자는 거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가방 안을 휘적거린다. 짐들이 하나, 둘 바깥으로 꺼내진다. 파우더, 손거울, 작은 메모지. 여자가 마지막으로 들어 올린 건 열쇠다. 길가에 내놓은 짐들을 다시 가방 안에 집어넣는다. 다행이야. 찾고 있는 걸 찾았구나. 너무나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나는 여자를 더이상 따라가지 않기로 한다. 뭘 기다린 거지. 나에겐 찾을 것이 없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튼다. 나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오렌지빛 태양이 지고 있다. 나는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말아보고 싶던 냄새가 난다. ■